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 무엇을 해야 하나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기획자 註] 지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2월 16일 한국을 국빈 방문,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였을 때 두 정상은 한국-우즈베키스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수교 3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이 민과 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동덕여대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오은경 소장님의 기고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재선에 성공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의 의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2월 16일 국빈 방문,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 중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대통령 선거에서 81%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 내부에서는 일부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대내외적인 정책과 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 내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외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런 긍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 노력 덕분에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경제 지표에서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잠재력은 꾸준히 개발되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서 10년 후 우즈베키스탄의 위상은 오늘날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과 정상회담이 외교수립 3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 부상

국제정세는 미·중·러 '대국'의 삼각관계가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미·중, 미·러 갈등의 미묘한 변화와 전략 속에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에 어느 정도 완화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은 대러 관계를

미·중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양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중국,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한 이후 지난 10년간 미국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던 중앙아시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재집권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앙아시아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미국으로 구성된 C5+1 포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다분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속내가 숨겨져 있다.

탈레반 재집권은 중앙아시아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에 5백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우즈베크어 사용자 인구가 자국민과 혈연, 지연 등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적 불편을 겪어 왔다. 자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확산은 곧 정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과도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피로감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우호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준회원국이 된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W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와 발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과 개방 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약 3천 5백만 명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이다. 더구나 인구 80%가 30세 미만이라는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우즈베키스탄의 행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과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 간 분쟁의 근원이 되는 국경, 수자원 문제, 교통망 연결, 상호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등 개방 정책을 통해 지역안보와 평화 유지를 시도해 왔다.

제 75차 UN 총회에서 우즈베크어로 연설을 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을 강화하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2022년부터 투르크 평의회 의장국이 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협의체’인 투르크평의회(Turkic Council)가 결성된 이후 이들 국가들의 결집력은 더 커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투르크 국가’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투르크 벨트 국가들은 정치, 경제, 통상, 물류, 문화, 교육, 교통, 교육, 관광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늦게 2018년도에 정회원으로 합류한 우즈베키스탄이 의장국으로써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도 관건이다. 중앙아시아 내의 리더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됨과 동시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대국’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 출범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산업구조의 변동과 전환은 우즈베키스탄을 더욱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 부상,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전략적 동반자’로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갖도록 유도하는 조건이다.

3.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 무엇을 해야 하나

미·중, 미·러 갈등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역학관계, 그리고 팬데믹과 탄소중립이 가져온 경제와 산업구조의 혁명적인 지각변동 속에 우즈베키스탄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할 좋은 파트너이고 협력국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의 총체적 접근이 동원되어야 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나라이므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초한 ‘우즈베키스탄 이니셔티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친연성(親緣性)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고대부터 언어, 문학, 문화, 역사 등 문화적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역사를 규명하고 사료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을 추천한다.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동방학 연구소 내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디지털화 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한국과의 공동 비교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또한 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ICHCAP), 국제중앙아시아센터(IICAS)가 실크로드 8개국과 공동 추진 중인 ‘실크로드 리빙 헤리티지(Living Heritage) 프로젝트(Silkroad network)’와 같은 사업들도 문화공동체 수립 전략을 위해 양국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중앙아시아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인재양성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 진출에 필요한 모든 분야, 물류, 교통, 건설, 법률, AI, 농업, 블록체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산업인력과 연구 인력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대학의 존폐위기에 처한 대학들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주도하여 민·관·학 협력방식의 인재 양성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나 한국 전문가 양성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 내

우즈베크어 학습자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전문가 역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가의 부족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즈베크어를 가르치는 대학도 국내에는 한국외국어대가 유일한 실정에서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기타 지역에서는 러시아어가 통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어권이 라는 오랜 인식으로 인해 제도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한국인 청년 대상으로 국비 장학생 제도를 갖추고, 한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한국인 대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친-우즈베키스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반드시 학위 과정일 필요는 없다. 석·박사 학생들에게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우즈베크어를 학습하고, 자신의 전공을 우즈베키스탄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과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 언어, 문학, 음악, 블록체인, 건축, 미술, 경영, 경제, 농업, 물류, 에너지, 의료보건 등 모든 분야를 열어두고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내 대학교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도록 우즈베크어 강좌,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과정, 투르크학과 연계과정 설치가 필요하다. 한국 교육부가 대학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설치할 경우 교육부 평가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이다.

셋째, 문화공동체와 양국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갈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양국이 이런 과제들과 더불어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책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한다면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경제협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및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연구역량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학과 지역학이 총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국가 비전과 양국의 문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수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싱크 탱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공공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인지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콘텐츠들이 미국 및 서구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고, 국내 유입된 우즈베크 노동자들의 숫자가 8만 명을 넘다보니 우즈베키스탄을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를 수출하는 나라’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외교 수립 30주년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 추진할 문화원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주도형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기업에만 맡겨 두었을 경우 사업이 원만하게 진척되기 어렵다.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고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그리고 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재정보증을 해주지 않아 중단되는 사업도 허다하다. 민간자본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즈베키스탄 시그니처 프로젝트였던 ‘수르길’ 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주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특별기구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동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각국 장관을 넘어 국무총리실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즉각적인 보고 및 처리 체계가 갖춰져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기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점차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해 나간다면 기업 진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안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양국의 외교 및 정책 당국자들의 몫이다.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수교 30주년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단순히 의례적인 외교 관계의 역사를 쓰는데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오은경 교수는 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자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장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한·중앙아 협력포럼,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터키 국립 하제테페 대학교 문학박사(Ph.D)이자 우즈베키스탄 국립학술원 인문학 국가박사(Doctor of Philology)이며 아제르바이잔 국제 벡토르 학술원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터키문학·이슬람여성·비교문학·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의 구비문학·정신분석학으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터키어, 우즈베크어, 영어, 러시아어로 백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터키·유라시아 투르크 전문가로서 활약 중이다.

2021년 12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